

하이브·월드디즈니 협업...BTS 콘서트실황·다큐 공개

하이브가 제작한 총 다섯 개 콘텐츠, 전 세계에 공개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그룹들 콘텐츠도 추후 선보여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HYBE)와 월드디즈니 컴퍼니(TWDC, 이하 디즈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이 협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출연하는 두 개의 작품을 포함 하이브가 제작한 총 다섯 개의 콘텐츠를 전 세계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하게 된다.

우선 작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SoFi)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가 디즈니 OTT인 디즈니+를 통해 공개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약 2년만에 팬들과 대면으로 만난 순간을 4K로 담았다.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른 '버터(Butter)'와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등의 공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JTBC를 통해 방송되는 '인더슈 : 우정여행'도 디즈니+에서 볼 수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뷁과 배우 박서준, 최우식, 박형식, 가수 피보이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여행 프로그램이다. 짝짝 여행을 떠난 다섯 친구들이 '일상과 휴식 그 사이'를 즐기는 여행을 담았다.

방탄소년단의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 다큐멘터리 시리즈 'BTS 모뉴먼트 : 비욘드 더 스타(MONUMENTS : BEYOND THE STAR)'도 디즈니+를 통해 볼 수 있다.

하이브는 "약 9년에 걸친 방대한 음악과 영상은 물론 멤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에 위치해 올랐는지를 담은 콘텐츠다. 두 번째 컷터를 준비하는 멤버들의 소중한 일상과 현재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 등 내면

의 이야기도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공개된다.

이 외 하이브 레이블즈의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추가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오랜 시간동안 음악과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위해 제작해 온 하이브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글로벌 시청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을 탁월한 브랜드 파워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고 음악 아티스트와 협업해 온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와의 장기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시카 캄-앵글(Jessica Kam-Engle) 월드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콘텐츠 및 개발 총괄은 "강력한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와 뛰어난 콘텐츠를 바탕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하이브의 작품들이 디즈니+를 포함한 글로벌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협업은 아태지역 선도적인 창작자,



배우, 그리고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 온 디즈니의 오랜 창의적 열망의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새롭게 공개하는 콘텐츠가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이라 믿으며,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보다 많은 음악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콘텐츠 회사인 K팝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엔 넷플릭스가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다큐멘터리 '블랙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를 공개했다.

코난·뽀로로·미니언·도라에몽...여름에 다 본다

7~8월 여름방학 시즌 애니메이션 풍성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됐다. 영화계와 극장업계는 여름방학을 맞아 영화관에 오게 될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가득 준비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 관객을 위한 뽀로로 영화부터 부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마니아를 위한 일본 애니 등 다채로운 작품이 7~8월 매주 공개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관객을 만날 작품은 오는 13일에 관객을 만나는 '명탐정 코난:할로윈의 신부'다. 이번 작품은 할로윈 시즌으로 활기찬 도쿄 시부야를 배경으로, 코난이 극약무도한 폭파범 플라자를 잡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일본 현지에서는 지난 4일 개봉해 현재까지 91억엔을 벌어들이며 또 한 번 흥

행에 성공했다. 만화책이나 TV 애니메이션으로만 코난을 접했던 아이들에게는 극장판 코난의 스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다.

같은 달 20일엔 '미니언즈2'가 개봉한다. '미니언즈2'는 아마 올해 여름 나오는 애니메이션 중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작품일 것이다. 미니언즈 중 캐릭터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 데다가 미니언즈 특유의 유머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2015년에 나온 '미니언즈' 역시 262만명을 끌어모으며 흥행했다. 이번엔 미니언들이 세계 최고 악당을 쫓는 미니보스 '구루'를 따라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미국 현지에선 지난 1일 개봉해 2억1000만 달러 수익을 기록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초통령' 뽀로로도 극장에서 어린이 관객을 기다린다. 오는 28일 6번째 뽀로로 극장판 애니인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이 나온다. 깊은 산 속 드래곤캐슬에 봉인된 보석 드래곤하트를 빼앗아 왕이 되려는 수상한 마법사 게드가 나타나고, 뽀로로와 친구들이 게드에게서 드래곤하트를 지키기 위해 나서서 이야기다.

8월에는 애니메이션 2편이 개봉한다. 하나는 아직 개봉일은 확정 안 된 '극장판 도라에몽:진구의 우주전쟁'과 또 다른 하나는 10월에 나오는 'DC 리그 오브 슈퍼-헛'이다.

'극장판 도라에몽:진구의 우주전쟁'은 도라에몽 시리즈 41번째 극장판이다. 작은 별 피리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가락 만한 우주인 파피와 함께 떠나는 도라에몽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작품은 지난 3월 일본 현지에서 개봉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했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이 영화는 1985년에 나온 '극장판 도라에몽:진구의 우주전쟁'을 리메이크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DC 리그 오브 슈퍼-헛'은 아마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성인 관객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슈퍼맨과 함께 지구에 온 슈퍼독 크립토가 슈퍼 파워를 갖게 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위기에 빠진 슈퍼맨과 저스티스 리그 슈퍼히어로를 구하기 위해 나서서 이야기다. 일단 주목을 끄는 건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들이다. 드웨인 존슨, 케빈 하트, 키아누 리브스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했다. 이와 함께 DC시네마틱유니버스와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슈퍼맨이나 배트맨을 좋아하는 관객에게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

트와이스, K팝 그룹 '7년 징크스' 없다



전원 JYP와 재계약 완료

9인 그룹 '트와이스'에겐 K팝 그룹 '7년 징크스'가 통하지 않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2일 "트와이스가 올가을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멤버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팝 엔터테인먼트사 JYP의 위상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트와이스, 또 트와이스가 K팝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된 JYP가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더 발전된 미래를 확신하며 재계약에 합의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트와이스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멤버가 탈퇴하거나 다른 소속사로 옮긴 경우가 없다. 드문 사례다.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이 최장 7년을 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연예인 전속계약서의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데뷔 7년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많은 그룹들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흩어진 경우가 많았다.

7년을 전후로 회사와 멤버들 스스로 장수그룹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트와이스와 데뷔 시기가 비슷한 여자친구·러블리즈·에이프릴이 해체했다.

2015년 10월 데뷔한 트와이스는 하지만 상승장구하고 있다. 각종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및 한일 음반 누적 판매량 1000만 장 돌파,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기간 도쿄 돔 입성, 정규 3집 '빌보드 200' 3위, 전 세계 걸 그룹 중 최다인 20편의 1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 보유 등 숱한 국내외 신기록을 세우며 K팝 간판 걸그룹 중 한 팀이 됐다.

올해 특히 활약이 눈부시다. 네 번째 월드투어 '트와이스 네 번째 월드투어 '쓰리'의 미주 투어에서 K팝 걸그룹 처음으로 북미 스타디움 공연 등 2회 앙코르 콘서트 포함, 미국 5개 도시 9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15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일본에서는 해외 아티스트 사상 처음으로 '일본 공연의 성지' 도쿄돔 3회 연속 공연했다.

솔로 병행을 시작했는데 역시 성적이 좋다. 트와이스 첫 솔로 주자로 나선 나연이 지난달 24일 발매한 미니 1집 '아이엠 나연(IM NAYEON)'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7위를 차지했다. K팝 가수 솔로 처음으로 해당 차트 톱10에 진입했다.

투바투, 美대표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롤링스톤' 출연

미국 뉴욕 뜨겁게 달궜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국 뉴욕을 뜨겁게 달궜다.

12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11일 미국의 대표 아침 TV 프로그램인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이하 GMA)'에 출연했다. 이들은 GMA의 뉴욕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미니 4집 타이틀곡 '굿 보이 곤 배드(Good Boy Gone Bad)' 퍼포먼스를 펼쳤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인터뷰에서 "2019년에 미국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데 다시 오게 돼 기쁘다"며 "첫 월드투어(미국 내) 7개 도시에서 공연을 한다 좋은 시간을 보내려 여기에 왔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난 공연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인사했다.

GMA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K팝의 가장 중요한 목소리 중 하나다 여러분은 전 세계의 2세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이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저희에게 그런 타이틀을 주셔서 영광이다 우리가 발매한 많은 곡들은 공통적으로 성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준 분들께 감사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국 대표 음악 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의 공식 트위터 채널에서 라이브 인터뷰를 가졌다. 방송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필요일 아침 롤링스톤의 스튜디오에 에너지를 가져왔다'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롤링스톤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꿈의 장', '혼돈의 장', '미니소드(minisode)' 시리즈로 이어진 음악과 퍼포먼스, 첫 월드투어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멤버들은 "우리의 미래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월드투어는 우리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국 내 7개 도



정려원, '10년 동행' H&엔터와 재계약 체결

배우 정려원이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와 계속 함께한다.

소속사 에이치앤드(H&)엔터테인먼트는 "홍민기 대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와 첫 시작을 함께한 정려원과 재계약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가족과도 같은 정려원과 함께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 10년째 동행하고 있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려원은 로맨틱 코미디부터 멜로, 수사물까지 깊이 있는 캐릭터 소화력과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연기력으로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다. 곧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출품작인 '하얀 차를 탄 여자'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로 대중과 다시 만난다.

지난 7일 개막한 영화제에서 먼저 선보인 '하얀 차를 탄 여자'는 세 여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오랜만에 복귀하



는 정려원의 연기를 볼 수 있다. 또 드라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에서는 승소율 1위, 유명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로 새로운 연기 변신에 나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정려원은 내추럴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비주얼에 남다른 패션 센스까지 겸비해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 아이콘으로 사랑 받고 있다.

한편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주지훈, 인교진, 소이현, 천우희 등이 소속되어 있다.